



紀念五個年計劃案

(總長)

(三) 修養館設置
 (四) 主日學校運動
 (五) 復興運動
 (六) 中、高等聖經教材四冊
 (七) 機關紙發行
 (八) 刊行及文書運動
 (九) 傳道部
 (一) 全國的○로 大傳道運動
 (二) 無教會都面에 五卅年 傳道計劃 忠南北一一四 全南北一一八 慶南北一〇四 京九
 (三) 二十二大都市에 街頭放送機設置 (四) 增加運動 教會增加 2 教人增加 2 人인대 이러한 大計 計劃을 推進함에 있어서 費用○로 四億七千二百八十萬七千圓을 計算하게 되었는바 그 經費는 洗禮敎人一人當 每年十圓을 支給하기로 協定이 함다. (基督公報)

유 감독

柳澄基監督再選

監理教總會終了

予定한 監理敎會 總會는 日
 十六日로 二十二日까지
 貞洞第一禮拜堂에서 今年
 年會를 병하여 개최한바 모조
 의 문제로 약간의 분규가 있

앞날의計劃과反省

위(운동)에 지나지않기를
바라는 까닭이다.

우리는 결코 현재의 교회
만 생각하고 금일의 정세만
생각해서는 안될것이다. 적어
도 십년뒤나 三十年 四十年
오십년 뒤의 일을 내다보고
또는 과거 몇십년 전일을
돌아보아 현재의 상태를 반
성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현
재 모양대로 고식적으로 뜻
뜻미지근하게 나간다면 이제
로 부터 十년혹三十年 四五
十年 뒤에 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가 무엇이 남
을 것인가 또는 현재 교회
가 이 상태에 있는것이 과
거에 혹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과 전도방법에 무슨

커다란 결함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방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재래의 우리 방법은 연중 행사의 사경회 부흥회 대전도회 혹은 수양회등 판에 박힌 운동이었고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고 어떤 이름있고 인 끼있는 목사 특히 몇사람 부흥목사를 중심한 활동이었다. 따라서 그때 행사에 그치고 한사람 한사람 인간을 본위로한 움직임이었고 심지어 한때의 파동이오 노골 적으로 말하면 한때의 것 같고 일어로「오마쓰리 사와기」로 그쳤다.

이제 우리의 전도는 깊은 열줄기, 생명의 물줄기를 근

日本宣教百年

紀念運動宣言大會

東京共立講堂에서

자단 三月二十四日(水) 오후六시에 동경 간다에 있는 공립강당(共立講堂)에서 일본 기독교협의회(NCC) 주최의 선교백년 기념운동 선언대회가 모였다.	의 순서를 지나 실행위원장인 오자끼(小崎)씨가 나타나서, 일본에 복음이 온지 백년이 가까웠으나 일본의 기독교는 아주 미약하니 우리가 책임을
--	--

이것은 오니 一九五九年	일본이 북을 받은지 백년되 는 해인데 그 백년기념 운동 을 미리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오래게회으로 취진시키기로 하 고 지금부터 일본의 기독교 각교파와 기독교 각교육기관 각사업단체가 총단결하여 일본 전국민에게 한사람도 북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하고「백 만원 헌금모집」의목표를 가지 고 대전도운동을 전개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중앙인 동경에서 이 계획을 선언발표 하여 신자의 결심을 굳게하고
요지의 인사와 말솜이 있고 남녀학생으로 된 동경아메리 가 문화(文化)센터 합창단의 참석이 있는 뒤에 중앙백발의 노학자 예일·부룬더박사가「세 계의 희망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야스무라씨의 통역으 로)약 한시간의 힘있는 강연 은 일반청중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고 뒤이어「카가와」씨의 「하나님에 의한 일본의 양심 의 재생」이라는 문제의 간단 한 강연이 있은후에 다음과 같은 선언남독이 있었다.	

기세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면 별다른 대개도와 카가와씨의 권장으로 많은 정치를 할 수 없었으니 벌써 개도에서 결심자가 있었고 전회중이 득치고 강단 정면에「전국민에게 복을 줄」이라는 표어가 푸금에 있은다음에 선거부위원장 렷이 붙어있고 그앞에「오자 끼」씨가 가와씨를 비롯하여 다다. ○선교백년기념운동 선언문

표까지도자들이 둘러앉아 있다

○선교백년기념운동 선언문

일본선교기사 이래 백년을 맞이함에 당하여 급일에 우리 는 하나님의 길은 은혜와 선 구자의 기도와 분투로 인하여 우리교회와 그 기초를 닦아 된 것을 감사한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혼미(混 迷)에 있어서 더욱 복음선교	의 급무를 통감하고 一九五九 년 선교백년의 해에 이르기까 지 그리스도교 전교회와 모든 단체의 힘을 집결하여 전국 각지에 복음의 열매를 기하여 이 운동을 전개한다.
---	---

勉青春季修養會

定期總會已開催

西南地方修養會

定期總會도開催
西南地方修養會
西南地方總會連合會에서는 三月二十三日 小倉教會에서 第二回連合會總會 開催하여 任員을 選舉, 또 修養會第一十三、四日間 開催하여 講師은 金元治、安榮使 兩牧師 및 金경산 講道師을 請하여 盛況裡에 끝마쳤다 하는데, 參加者는 約七十名이었으며, 選定된 新任員은 다음과 같다.

中國地方名古屋

中部地方勸業協會 春季修養會는 지난 三二七日 名古屋로에서 開會였다 한다.

聖經時代人

關東地方勸業連合會修養會는 四月二日、三日兩日間 北多摩郡 武藏小金井에서 가파운 「清恩館」에서 開會하였다. 한

苦難遇間の瞑想

웬말인가 날위하여

秋
湖
堂
人

지리한 겨울도 쓸쓸한시절도
리턴 별래가 변하여 곱고 곱
지나가고 만물이 갱생하는봄,
흔 나뭇가 되어 공중에 펄펄
꽃피는 봄이 왔다. 온 세계
날고 있는것은 부활의 봄의
수업서 꽃피는 봄은 찾아왔다
니냐.

저주와 악욕의 무덤에서 주
는 용감한 사랑을 이기시고
들어나셨다.

부활절! 이는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복스러운 소식이다.
지리하던 밤이 지나가고 광
명 아침이 온 것처럼 시인하
는 상피한 것은 부활의 봄을
이하는 것이다. **속속**에 온
있던 수려이 속에서, 꿈틀거
는 **속속**에 온

그러나 화평하고 즐거운 부
활의 봄을 생각할때에 **영동설**
한 처운 겨울, 침침하고 쓸쓸
한 겨울, 죽음같이 피로운 겨
울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각하기전에 **욕스럽고 저주의**
심자가 있었던 것을 잊어버

말이야 할 것이다.

오는 것이다.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
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심자가뒤에는 부활이 온다는
것도 귀한 진리지마는 부활이
있기전에 심자가 있었다는것
은 더 귀하고 엄숙한 사실이
다.

오오!
십자가상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에 지신 십자가,
갯세마네 등산에서 땀방울 흘
리실 때에 주님은 벌써 보이
시 않는 십자가를 지신것이다
끝났다 상산에서 사실로 그
좁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주님은 고통을 호소하신 일이
없지마는 갯세마네 등산에서
모이의 기도를 하실 때에는

연약한 인간의 제자들에게까지 동무와 드음을 요구하기까지 고독과 고통을 당하였다. 그 고통이 심하신 나마에 방울방울 땀샘을 흘리시고 붓을 하셨다고 허부리기자는 우리에게 전한다(五·七) 「우리 연약한 (슬픈)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짐과 함께 짐머지셨다」(이사야五·七) 마태八·十七)

한 것은 이 때의 주님의 정경을 잘 들어낸 말씀이다 우리가 잘 고통, 우리에게 태인 책임을 담당하시고, 온 세상이 인간이 짐을 다말하지 시니 얼마나 무겁고 피로우셨

이라.

심자가의, 고초, 마음의 고뇌가 어울려진 심자가의 고초! 인간의 약화가운데도 가장

악착한 십자가의 고초! 두손
에 뭇을 뺀고, 하이 두손의
못자리에 매여 끌리고 다름에
두발에 뭇을 뺀고 또 뜨거운
해벌에 공중 버려두면 못자리
가 아루고 쓰리고 저런 외에
하늘에서는 사나운 특수리가
가끔 달려들고 벌에서는 사량
하는 어머니와 심도들이 가슴
을 치고 울고,
게다가 몸은 험기증과 심한
갈증 따라서 높은 심장의 고
동 마치내 심장의 파벌。
그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
릴려고 마취제인 마취 드렸지만
는 주님은 안받으시고 골골네
그고초를 당하셨다. 이런 생
각을 할때에 「열반인가 주를
아가셨다」하고 눈물의 찬송을
안부할수 없다。

(四面六단에 계속)

요새 신문에는 「비기니」 바다 위에서 떨어져서 일본 어부를 이 뒤집어 쓰고 온 소위 「죽음의 재」의 문제가 날마다 떠돌아 있다.

그 어부들도 물론 금지구역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밖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인가.

원자 실험은 하던 전문가 과학자들도 「방사선(放射線)의 위력이」까지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식밖에 벗어나는 위험을 가졌던 것이다. 망망한 대양 무인도에서

中部地方은古屋서

中部地方勉會 春季修養會 是日 三、二十七 日 名古屋 聖經會에서 開會였다 한다. 來信이 없으니 자세한 未

「聖經과 現代人」

關東은北多摩에서

關東地方勉會連合會修養會는 日 四月二、三日兩日間 北多摩郡 武藏小金井에서 가까운 「洛恩館」에서 開會하였다 한

악한 심자의 고초! 두손

어긋나고, 고초! 두손

가슴 달리고, 고초! 두손

을 치고, 고초! 두손

고초! 두손

가슴 달리고, 고초! 두손

을 치고, 고초! 두손

실현한 것이 이렇게 굉장한 세력이 있다면 만일 이것을 어떤 사람 사는 지역에서 사용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까. 원자력이나 수소탄을 정 말 쓴다면 전세계 인류는 고사하고 온 땅덩어리가 결단 날것이라 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금금히 생각해보자 이것은 한갓 전경이 아니 평화니 하는 문제가 아니 인류의 운명의 문제다 그보다도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다.

결한 존재다. 사람이 영으로 하나됨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영의 하나됨을 바라보지 않고) 지대로 하나됨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 이것이 금일의 과학발달이요 곧 반쪽문명이다. 이것은 마치 어리둥둥가 어린 송아를 내려 붙잡아 놓는 것과 같을 수 없는 큰 불이 나서 짐이 타고 제 타는 불이다. 불이 났다. 불이 타는 불이다. 불이 났다. 불이 타는 불이다.

關西地方에서는

京都教會에서

다. 이번 修養會의 主題는 基督青年으로 「聖經과 現代人」의 關係를 研究하는 것이며 講師로는 金元治牧師, 船水衛司先生, 淺野順一牧師, 成丁萬牧師 沈恩澤傳道師, 羅魯男先生이 있으며, 盛況裡에 끝마쳤다 한다.

關西地方 勉會連合會 修養會는 日 三月二十九日 京都教會에서 開會되었다 한다. 教會數로나 地域的關係로 보아 關西地方 修養會는 가장 盛大히 열렸는데, 詳細事項은 追後報道

永信幼稚園 卒業式

(屋古名)



제일 한국기독교 名古屋교회에서 敬營하는 永信유치원은 日 三月二十日 제三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한다. 금년에 졸업한 원아는 十二명인데, 다 회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우리 나라 어린이를 育英하는 唯一의 幼稚園으로서 設立以來 수많은 卒業生을 내보냈으며, 특히 이번에는 宿願이던 피아노를 새로 購入하였다 한다.

民族自覺과 한글教育問題

그 日本에서의 實情에 對하여

姜泰鼎

그런데 오늘 우리民族社會가 保有的하고 있는 世界文化에 關한 書籍이란 매우 稀少하며 圖書室에 가면 아직 日語로 된 書籍을 通하여 서한이 그 知識力을 겨우 充足시키는 程度에 불과하다. 이 말은 우리 民族社會가 世界文化에 對하여서 實情로 世界文化를 攝取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이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임이냐. 언제나 말하는 말이지만 青年이란 그 나라의 기둥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이 모두 青年들의 勞力에 依하여서 成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國은 戰火에 불타고 青年學生들은 代身에 銃을 메고 敎國戰線에 싸운 것이다. 이미 戰火는 꺼지고 다시 祖國을 再建할 希望이 크게 부풀어 올랐는데, 今에 있어서 直接 戰火의 被害를 입지 않고 그 學業을 繼續해 온 이땅의 學生들에게 對한 期待라든가 혹은 技術을 鍊磨하는 青年들이야말로 戰火로 破괴된 民族社會를 다시 復興할 必々한 人材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祖國을 認識못한다는 이 한가지의 사실! 더욱이나 말을 解得 못하는 탓으로 祖國에 나가 民族社會에 이바지해 보겠다는 熱誠이며 적극적인 意欲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點에 우리가 日本에 있는 青年들에게 대하면서 한편 서운한 感想을 안게 되는 모순된 두개의 현실에 부딪치는 것이니, 이것을 갖이고 日本에 있는 青年과 本國에 있는 青年에 對한 民族教育을 同一視할수 없는 特殊性이 日本에는 있다고 보아지게 됩니다. 이땅의 青年들이 成長한 환경이란 日本社會이며 그들이 들지 않은 이땅의 青年들은 幼稚園에서부터 日本



예수께서 과연

부활하셨는가?

15:12-19

尹河英牧師

성경에 예수가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지자 열이아가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는 말씀이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으로 회당 어른 아이로 말과 나 인성 파부의 아들파 배다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고, 또 사도 바나사 베드로의 기도로 음바 파부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 록이 있거니와, 그 밖에는 사 람이 죽은 가운데서 영체로 부활하여 예수와 같이 인간과 아주 다른 영적 생활을 하였 다는 말씀은 어디나 없읍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복이나 영 것들 씌어하지 아니하고 병들 어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아 니하며, 또한 아무 정육의 껍 입에도 쉬 빠지지 않고 어떤 위험에도 용이히 놀리지 아니 합니다. 그는 다만 하늘의 영 생할만 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면 이처럼 과거十九

세기 동안 이 세상 많은 사 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며, 그 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평안 히 잠들게 하였고, 또 이 앞 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진실로 있었 음니까? 이번 부활절을 당할 때 이것을 한번 더 깊이 생 각하여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필 경 죽어 없어지는 인정들에게 다시 산다는 소망을 주는 유 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후 곧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증거할 자 기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여 주시기 위하여四十일 동안이 나 세상에 오래 머물러 계시 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 타나 보이셨읍니다. 즉 처음에 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 의 시체를 안타깝게 찾던 막 달라 마리아로 시작하여, 기 후 에는 길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음에는 방 안에 모여 있던 열 제자들에게, 또 기 후에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도 함께 모인十一 제자들에게, 그 다 음에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일곱 제자들에게, 나중에

로 제자들이 잠 깨어 예수의 제자들이 도록하여 갔을지 그 두 가지 외에는 달리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그 도록 하여 갔다는 말을 생각해보 십시다. 과연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록하였다 어디 갈 수 어 두고, 그가 부활하였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을까요! 그 들의 제자권 처음부터 가진 성격을 보든지, 처음에는 그들 도 부활하였다는 말을 듣고 믿지 않고 의심한 것을 보든 지, 또 그들이 기 후에 자기들 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때를 맞고 옥에 갇혀 죽기까지 하면서 부활의 도를 전한 것 을 보면 그들이 도록하여 갔 다고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시체가 어디 갔 음니까? 그가 살아 계실 때 에 제자들에게 여러번 거듭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는 부활하 실 당시 제자들이 분명히 말 함과 같이 그는 과연 다시 살아나셨읍니다. 제자들에게 이 미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우 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 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 니까? 이 절기를 기쁨으로 기념하십시오.

基督敎講座

希望이 되시는聖靈 (2)

에밀·부룬너박사

우리가 이 현대를 생각할 때 희망이라는 말만큼 의의 있는 말이 없다. 현대만큼 희 망이 끊어진 세기는 없기 때 문이다. 일본의 여러분도 느끼 겠으나, 희망을 잃은 청년이 많다. 이 현대의 절망을 구하 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그중 하나만 지적하였다.十九 세기를 돌아보면, 그때는 인 류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류는 문명에 간다는 희망이었다.十九세기에는 인류 의 진화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다. 과학의 진보에 근본이 있었단 것이다. 지금은 인류의 진보를 기초로 하는 희망은

없어졌다. 구라파에서는 히틀러 가 그 희망을 깨뜨렸으며, 미 국에서는 나치적인 태도로 있 을 때에 일본 히로시마에 핵 어진 원자탄은 인류의 희망을 모조리 깨뜨리고 말았다. 원자 탄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져왔 다. 문명 진보의 희망을 깨뜨 러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의 희망이란 무가치함을 증명했다.十九세기 이래 꿈꾸 던 인류의 희망을 잃고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현 대이다. 역사를 들춰보면 인류 가 희망을 잃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고대에도 희망을 잃은 때가 있었으나 그 때는 물레

바퀴처럼 다시 새 세기가 돌 아올 것을 믿고 있었다. 이 세 계는 그 속의 생명력도 한 개 반복된다는 세계관이었다. 동양의 어느 대학 학장이 나 에게 실존철학(實存哲學)에 관한 강의를 요구한 일이 있 었다. 그의 학생은 실존주의에 도취하여 일주일에 네이나나 자살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절 망의 철학은 절대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공개 한 것이 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기에 무엇을 할까? 우리의 희망을 다섯으로 구분하여 말하면, (1)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외부에서는 비극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십 자가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이 비극 중에서 희망을 찾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2)우리에 틈을 보라. 한 사람이 아니고

田榮澤 詞
朴在勳 曲

부활의 노래

Adagio

캄캄한 나-라 절망의 무덤을 바위로 막고 인도를 하여라. 새

빛을 문-득 어둠으로부터 영-여 불러-고 주님-을 다시 사셨네

Allegro con brio

원수의 사탄(사탄)이 울어 불렀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一、 캄캄한 나-라 절망의 무덤을
바위로 막고 인도를 하여라
새벽 빛 문득 어둠을 쫓으니
무덤이 열리고 주님 남시네
원수의 사탄이 울리니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二、 희망의 줄이 끊어진 제자들
돌아서 가는 외로운 발자취를
밤을 새 울던 눈물도 꿈인듯
무덤이 열리고 주님 남시네
성령의 왕이 권세를 찾으니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三、 때마침 사막 빛없는 인간에
새 생명 찾아 영원한 은총이
소망이 없는 영혼을 불으니
새 생명의 주님 마지를 하여라
광명한 새벽 부활의 아침에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이야기거리)

聖經 말씀으로 보물 발견

聖經으로, 문해 있던 보물을

발견하였다.

유대국 이스라엘나라에서는

요새 성경연구회가 대단히 높

아졌는데 그것은 수천년동안

유대사람의 마음에 살아 움직

이는 그 생활의 중심일뿐 아

니라 잊어버리고 있던 보물을

찾아내게 되는 까닭이라고 한

다.

이스라엘나라에서 제일 귀하

고 필요한것은 금속자원인데

그것을 성경말씀으로 발굴하게

되는것이라고 한다.

구약 열왕기상 7장5에 「히

람이 솔로몬왕을 위하여 여호

와의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

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

단 평지에서 숙곳과 사르단사

이에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다라」

하는 말씀으로 그 장소를

파본 결과 과연 동이 나왔

우육 구이 (너비아니)

재료 (1)	(큰 한접시 분)		
우유	한근	마늘	두쪽
설탕	다섯큰사시	호추가루	조금
간장	다섯큰사시	깨소금	두큰사시
파	두뿌리	기름	두큰사시
재료 (2)	(큰 여덟접시 분)		
우유	여덟근	간장	두함
설탕	한함	호추가루	두차사시
생강	조금	깨소금	한함
파	열뿌리	기름	한함
마늘	열쪽		



- 1 우육을 얇게 저며서 도마에 한조각씩 놓고 잔칼질을 해서 설탕을 넣고 골고루 주물러놓고
- 2 생강 파 마늘을 곱게 이겨서 간장에 넣고 깨소금 기름을 쳐서 저어가지고
- 3 고기에 약념 간장을 넣고 잘 주물러서 석쇠에 구워 한치 길 이와 팔분 넓이로 썰어서 더운김에 상에 놓느니라

과부들을 위하여

목사가 우유배달
영국 「다들레」에 있는 침례
교목사는 가난하고 병중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다. 몸으로 사랑
을 실천한 것이다.

요. 벌써 열번 두 더
들었어요.

아버지
그래 그래. (기특한듯이
영화가... 왕조가 바뀌
면 죽은 등걸에 새까
이 돌듯이 그렇게 세
상이 변하는 법야.
으음 양이 서야지. 클
목! (몸을 다시 방안
으로 넣고 문을 닫는다)
아버지. 삼촌 어디 가
셨우?

순남엄마 어디 또 술이나 가
서 마시겠지.

순남이 어머니 (좀 생각하다가
그래두 너무 삼촌 보
구 그러지 말아요. 삼
촌두 딱하지 뭐. 어머
니 그럼 나 다녀 오
겠어 (퇴장)

형국 등장, 기록은 입었으나
모자는 안졌고 술이 흠뻑 취
했다. 한편 팔이 없다.

형국 (비출비출 드려오며) 아
주머니 난 난 또 취했
읍니다. 취했어요.

순남엄마 (안보려한다) 좋겠어요
형국 아 좋구말구요, 장히 좋
습니다. 아주머니 떡장술

한대서 나 술잔 사주
시는거요. 옛가락처럼 뿔
뿔 꼬긴 뿔 꼬시오.

순남엄마 흥! 집안식구들이
술만 마시 댜요?
(올라 가문을 격하여)
이거 왜 이래? 누굴 그
럼 어쩌라는 게야 (순남
엄마를 좀 노려보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 마루
에 내려앉으며) 나 냉수
한그릇 주.

순남엄마 (마음이 얼었다. 마
지못한듯 부엌으로 가서
냉수를 떠다 형국에게
불친절하게 내어준다)
형국 (역시 역청하여) 흥!

(그래도 물을 받아 마시
다 말고 무엇을 생각했
는지 냉수그릇을 땡겨당
돌에 던진다)

순남엄마 (역시 절구공이를 내
던지고) 왜 이러우, 왜
이래? 냉수 그릇이 무
슨 죄가 있수? 누굴
못죽여 이 역청이야
속 시원히 부엌으로 드
러가 다 부수구려!

(계속)

苦難週間の瞑想

원말인가 날위하여

(二面에서 계속)

주님의 이 고초 그그고난을
모르는바 아니지마는 우리가
지위만을 다투고 내몸의 영광
을 바라기는 하면서 그그를
조금이라도 같이 당하고 조금
이라도 덜어드릴라는 자가 있
는가 주를 믿고 따른다는자로
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히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도 너
히가 능히 받겠느냐」하신 주
님의 말씀은 주님으로 더브러
고난을 당할 생각보다 영광의
자리를 바라는 요한과 야곱보
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들어야 할 말씀
이 아닐까.

편안한 자리 영광스러운 일
만 바라보고 내 몸의 안락.
향복과 명예만 찾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일이나

어려운 자리 고생살이를 기어
히 피하려고 피만 부리는 우
리들은 고요히 십자가를 생각하
고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
각하여야 될것이다.

부활이 있기전에 십자가가
있었던것을, 부활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고통을 맛본 자에게
만 온다는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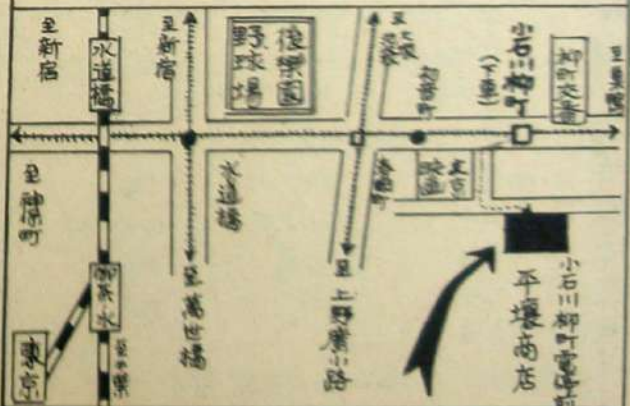
꽃피는 봄이 왔다고 그동안
어름과 어두움밑에 눌러서 온
겨울동안 참고 있던 모든 땅
속의 곤충을, 모든 초목의 움
들을 생각하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잊지말자

부활의 영광, 평화의 세계
행복의 동산을 바라면 묻저
고난을 당하여야 될것을 잊지
말자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라
도 손해를 당하고 고생을 달
게 받을 각오를 때 또 당하
고 받을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平壤商店

朝鮮布木



東京都文京區丸山福山町四番地
電話・小石川(92) 0187・4879
イヤナ 2209127

朴壽虎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神保町一ノ四九

찾는 사람

本籍 慶南宜寧郡柳谷面馬場里 金寬王 氏
이분은 지금부터 十二、三年前 和歌山教會에 있던 분
인데 消息을 아시는 분은 本社 또는 左記로 通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岐阜県山県郡高富町二丁目 田茂用